《일속》이 《창해》를 타승한 빨찌산전설

8.15는 일제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조국을 해방한 날이다.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면서 《대동아공영권》을 망상하던 일본의 패망은 필연이였다.

어느한 나라의 문필가가 저술한 도서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일본은 신흥군사강국이였다.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한다는것은 곧 세계적으로 공인된 일본의 군사력과 그를 안받침하는 경제력, 그들의 광신적인 사무라이정신을 타승한다는것을 의미했다. 이런 일본군대가 오랜 세월 많은 희생을 내면서 김일성장군부대토벌에 노력하였지만 이상하게도 토벌할수록 늘어나고 커가는 김일성장군부대, 실로 20세기의 이 수수께끼앞에서 일본군대가 전률하고 세계의 군사가들이 놀랐다.》

일제가 《20세기의 수수께끼》라고 아우성쳤던 항일대전의 기적적승리.

그 승전사와 더불어 전해지는 빨찌산전설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창해》를 뒤엎은 《일속》

19세기말, 20세기초의 조선은 너무도 힘이 없는 약소국이였다.

1905년에 이르러 일본의 병력은 20만명, 6 000t급이상의 최신군함도 12척이였지만 그에 비해 조선군대의 병력수는 서울과 지방을 합하여 고작 7 000명정도였다고 하니 포악한 강도의 무리에게 국권을 강탈당하고 나라를 빼앗긴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할수 있었다.

청일, 로일전쟁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대륙침략의 광기에 들떠있던 일제에게 있어서 수십년이 지난 후 맞선 항일유격대는 《창해일속》, 넓은 바다속의 한알의 좁쌀로밖에 보이지 않았을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항일성전을 선포하실 때 반일인민유격대는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일제의 관동군은 100만명에 비행기와 땅크를 비롯한 신식장비들로 무장되여있었으니 《창해일속》이라는 말은 과한 표현이 아니였다.

그 《일속》에 《창해》가 뒤집어졌다.

항일유격대를 《완전소멸》하기 위해 《토벌》에 나섰던 일제놈들이 터친 비명소리에서 일제의 악랄성과 함께 군국주의의 취약성을 알수 있다.

《1930년대 만주땅에서의 나의 근무활동은 추억하기조차 괴로운 체험을 루적시켰다. 김일성유격대의 존재는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그 아픔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에 와서 총화해보건대 〈황군〉이 추구한 〈공비숙청〉은 분명히 어리석은 오유였다.

…본인은 출세욕의 충동과 적의감에 피를 끓이며 유격대토벌에 용전분투했으나 추적은 매번 패하였다. 눈우에 찍혀있던 발자국이 돌연 사라진다든가, 강을 건는것은 뻔한데 강건너언덕에는 아무 흔적도 없으니 하늘로 날아올랐는지 땅속에 잦아들었는지 정말 수수께끼였다. 어느해인가 부후물에서 … 그들의 피이한 전법에 걸려들어 제편끼리 맞총질을 했는데 지금 돌이키면 수치감에 소름이 돋는다. 일본군의 병서나 용병술에는 그런 전법이 없었다.》

이것은 항일유격대에 대한 《토벌》에 나섰다가 패전의 고배를 든 어느한 《토벌대》 장교가 회상록에 쓴 글의 일부이다.

1936년 조선인민혁명군이 무송원정시기 소덕수등판에서 쓴 망원전술은 유격대가 《승천입지》, 《신출귀몰》의 《둔갑술》을 쓴다는 일제의 비명소리로 이어졌고 1937년 6월의 보천보전투는 《후두부를 팡하고 강타를 당한것같다.》, 《천날동안 베여들인 새초를 한순간에 태워버린듯한 한을 남겼다.》는 강점자들의 절망소리를 낳았다.

력사에 고난의 행군으로 기록된 조선인민혁명군의 남패자에서부터 북대정자까지의 행군시기 일제는 《맹공장추전술》의 기본인 《다니전술》(진드기전술)을 쓰면서 악착스럽게 달려들었으나 유격대의 갈지자전술, 매복전술에 걸려 패전에 패전만을 거듭하였다.

일제가 《억지로 내몰린 토벌대들은 자다가 얻어맞고 일어나다가 얻어맞고 도망치다가 얻어맞고 매복에 걸리고 하여 모조리 전멸되였다.》고 비명을 올리며 《김일성빨찌산의 라와에 걸리지 말라.》고 강조한것도 그 시기였다.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막기 위해 저들이 닦아놓은 갑무경비도로로 항일빨찌산의 대부대가 대낮에 행군한것을 두고도 《미증유의 피사》라고 개탄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림기응변의 지략과 천변만화의 전술, 《신출귀몰》의 전법은 일제에게 있어서 영원히 풀수 없는 《20세기의 수수께끼》속의 《수수께끼》가 아닐수 없었다.

수수께끼를 더해준 빨찌산전설

일본륙군의 《꽃》이라고 하던 100만관동군이 항일빨찌산의 신묘한 전법과 전술앞에 만신창이 되고있을 때 우리 민족은 백두산전설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조국해방에 대한 희망과 신심에 넘쳐있었다.

백두산에 유난히도 빛나는 장군별이 솟아올라 우주천지를 휘황히 비치고있다. 하늘이 낸 김일성장군님께서 백두산천지의 맑은 물로 목을 추기시고 장군바위에 오르시여 거룩하신 손을 높이 드시니 천지에 굳게 닫혔던 돌문이 열리고 그속에서 총쥔 병사들이 하늘땅을 뒤흔들며 왜적격멸에 나섰다. 그이께서는 백두준령의 울창한 원시림으로 총을 벼리시여 빨찌산대원들에게 메워주시고 그 많은 바위돌로 총알을 만들어주신다. …

《축지법》, 《변신술》, 《장신술》, 《분신술》을 비롯한 신비한 술법을 지니시고 《승천입지》, 《동성서격》, 《일행천리》로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하시는 백두산장수, 솔방울로 폭탄을 만드시며 가랑잎으로 군사를 나르시여 삼도왜적을 쳐부시는 《백두산호랑이》에 대한 가지가지의 전설은 삼천리를 들썩이게 하였다.

민족의 전설적영웅에 대한 숭앙과 흠모는 구호나무들에 새겨진 글발들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백두산에 장수별 떴다 백두산 장수별 삼천리를 비친다》, 《백두산에 축지법 쓰는 장수 내렸다》, 《민족최고 항일령수 김일성대장만세》…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흔아홉가지 축지법을 쓰시며 왜놈들을 혼비백산케 하신다는 이야기들은 결코 신비나 허황한 이야기가 아니였다.

백두산중의 깊은 동굴에서 훨훨 날아다니는 장수 수만명을 길러냈다는 전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1937년 동강에서 군정훈련을 한 후에 나온 이야기였고 수만군사가 종이한장으로 강을 건넜다는 전설은 보천보전투를 위해 조선인민혁명군이 뗴를 타고 구시물동을 건는 후에 나온 전설이다.

이렇게 항일의 무훈담과 백승의 영웅담들은 《20세기의 수수께끼》를 더욱 신비하게 하였다.

불멸의 저서에서 답을 찾다

8.15해방은 일제에게 있어서나 조선을 진보와 문명의 기슭밖으로 밀려난 《은둔국》으로 알고있었던 세인에게 있어서 《20세기의 수수께끼》였지만 그것은 력사의 필연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새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과 《ㄷ.ㄷ》를 결성하시고 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전을 선언하시였을 때 확신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이였던가.

유격전의 형식으로 항일전을 선포하시였을 때에도 그런 형식의 무장투쟁으로 적을 타승할수 있겠는가, 땅크와 대포, 비행기와 같은 현대적인 정예무기로 장비된 수백만대군을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유격대와 같은 비정규적인 무력으로 이겨낼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피력하시였다.

《우리는 국권도 령토도 자원도 다 빼앗긴 망국노의 아들들이다. 지금은 남의 나라 땅에서 결방살이를 하는 적수공권의 청년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주저없이 도전해나섰다. 무엇을 믿고? 인민을 믿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려고 결심하였다. 인민이 국가이고 인민이 후방이며 인민이 정규군이다. 싸움이 시작되면 전민이 병사가 되여 일어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벌리게 될 유격전은 인민전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을 안아온 비결이 바로 이 명제에 담겨져있다.

《토벌》하면 할수록 늘어나고 커가는 김일성장군부대?

일제는 이를 불가사의한것으로, 수수께끼라고 머리를 기웃거렸지만 이에 대한 해답도 위대한 주석님의 불후의 저서에서 찾아볼수 있다.

《적들은 우리를 〈장해일속〉이라고 하였지만 우리의 뒤에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진 인민의 바다가 있었다. 우리가 무슨 로선을 내놓기만 하면 인민들은 그것을 쉽게 리해하고 자기것으로 만들었으며 우리 대오에 수천수만명의 아들딸들과 형제자매들을 보내주면서 물심량면으로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가 령하 40℃를 오르내리는 만주의 혹한속에서 15년동안이나 발톱까지 무장한 강적과 싸워이길수 있었던것은 인민이라는 강력한 성새가 있고 인민대중이라는 무한대의 창해가 있었기때문이였다.》

일제는 항일유격대를 《창해일속》이라고 얕보았지만 오산이였다.

일제가 맞선것은 유격대만이 아니라 위대한 주석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조선민족이였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겸허하게 항일전의 승리의 요인을 인민의 힘이라고 피력하시였지만 그 인민도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랑하는 겨레, 인민이 망국노의 신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주석님,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항일전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20대에 해방성전의 무장력을 조직하시고 총사령관으로 나서신 민족의 구세주, 신출귀몰하고 령활무쌍한 전법과 전술로 일제의 100만관동군을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성업을 이룩하신 전설적영웅!

참으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모신것은 조선민족의 행운이고 영광이였다.

아시아의 강적이라 자처하던 일제를 무찌르고 조국해방을 이룩한 신비한 사실을 반영한 《20세기의 수수께끼》는 그후 보총으로 원자탄을 가진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고 위대한 7.27의 전승신화를 창조한 조선에 대한 수수께끼로 이어졌으며 오늘은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이어 쾌승을 안아오며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위대한 김정은조선에 대한 전설로 승화되고있다.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기적과 승리, 신화만을 창조해온 빨찌산전설은 세세년년 이어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정 혁

조국해방 78돐을 뜻깊게 경축

우리 겨레의 운명에서 극적전환을 가져다준 조국해방의 날을 온 나라 인민이 뜻깊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찬란한 인민의 나라, 강대한 공화국의 불멸의 명성과 위상을 누리에 떨치며 주체조선의 자랑찬 력사를 영광과 존엄, 번영의 백년대계로 이어가는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경축장마다에 넘쳐흘렀다.

조국해방의 날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그리움의 대하가 굽이쳤다.

태양의 성지를 찾은 군중들은 자주, 자력의 기치밑에 민족해방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시고 공화국이 사회주의 한길을 따라 승승장구 해나갈수 있는 귀중한 전통과 재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돌이켜보며 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영생축원의 인사를 드리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태양상,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군중들은 경모의 정어린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또한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받아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갈 일념안고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아 경의를 표시하였다.

각지에서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장중한 선률속에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를 숭엄하게 바라보는 공화국인민들의 얼굴마다에는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애국열의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수도 평양에서는 경축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응변모임과 공연들이 다채롭게 진행되였다.

청년학생들의 응변모임이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되였다.

격동적이고 호소성이 강한 응변들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의 새 승리를 향한 력사적진군에서 주체조선청년들의 강용한 기개와 전진기상을 뚜렷이 과시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다.

동평양대극장에서는 만수대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모란봉극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의 음악회가 진행되였으며 국립연극극장에서는 단막극 《내가 찾는 사람》공연이, 평양교예극장에서는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국립교예단 배우들이 출연하는 종합교예공연이 있었다.

피바다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 중앙예술경제선전대, 근로단체 예술선전대들, 철도예술선전대 등은 평양대극장, 평양체육관, 류경원을 비롯한 시안의 여러 장소에서 화려한 야외공연무대를 펼치였다.

또한 자강도, 함경북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에서도 환희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관람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해방된 조국땅우에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를 일떠세워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대성인의 불멸의 업적과 항일혁명투사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남포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과 청년들은 반마라손, 배구, 바줄당기기를 비롯한 체육경기들을 진행하였다.

국가의 은정속에 마련된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평양과 전국각지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에서도 명절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명절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며 각지에서 청년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가 진행되였다.

청년들과 녀맹원들은 무도회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드높은 열의를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조국해방의 날을 뜻깊게 경축하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학생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자주로 존엄높고 자력으로 부강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 불같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강국의 하늘가에 울려퍼지는 만세의 환호성

만세!

만세라는 이 말을 통해 세계에 빛을 뿌리는 강국의 오늘을 떠올리며 온 겨레가 다시금 새겨안는 철리가 있다. 그것은 절세위인을 모셔야 민족의 존엄과 영예, 영광이 있다는것이다.

지난 7월 27일 공화국에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였다.

세계에 있어본적 없고 누구도 흉내조차 낼수 없는 독특하고 황홀한 최고의 전승축전, 그 뜻깊은 경축의 밤 이 땅의 인민들 누구나 격정과 흥분에 넘쳐 목청껏 만세를 웨치고웨쳤다.

《전승 70돐 만세!》

《강대한 우리 조국 만세!》

《만고절세의 령장 위대한 김정은동지 만세! 만만세!》

세인이 우러르는 초대강국의 인민이라는 자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산다는 무한한 긍지.

반만년민족사에 오늘처럼 인민의 존엄과 영예가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진적은 없었다.

돌이켜보면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겼던 수난의 세월 우리 겨레가 피터지게 웨친것은 《조선독립 만세!》였다.

그 만세의 처절한 웨침속에는 외세의 노예로 결단코 살지 않으려는 독립자주의 강렬한 열망,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누리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그것이 그대로 3.1인민봉기, 6.10만세시위투쟁의 대중적항거로 터져올랐고 우리 민족의 거세찬 반일투쟁은 일제를 전률케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당시 일제의 《고등경찰비밀문건》에는 이렇게 수록되여있다.

《…각 계급이 망라한 민족소요는 1919년 3월 1일의 독립선언서발표와 함께 각지에서 일제히 일어나 료원의 불길과 같이 전 조선에 퍼져 꺼질줄 모르는 상태에 빠졌는바 무단적탄압에 의하여 겨우 진압되였다. …이 사건은 조선민족운동에서 한 전환기를 주고있는것으로서 … 〈조선독립만세〉를 웨치며 소요하였으므로 일명 〈만세〉 혹은 〈만세소요사건〉이라고 불리우고있다.》

독립만세를 목청껏 웨쳤건만 나라의 독립은 오지 않았다. 이것이 빈주먹뿐이였던 인민, 어제날의 약소민족이 당해야 했던 쓰라린 비극이였다.

독립만세의 절규가 산천초목을 뒤흔들던 이 땅에 해방의 만세소리가 울려퍼진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20성상의 영웅적인 항일투쟁으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찾아주신 그때였다.

지금으로부터 78년전 《평양민보》는 민족의 영웅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광경을 《금수강산을 진동시키는 40만의 환호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전하였다.

《평양의 력사가 깊어 4천년, 인구가 적지 않아 40만이라 하나니 일찌기 이와 같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일이 있었던가? 이와 같이도 뜻깊은 모임을 가져본 일이 있었던가?…

…특히 대회를 력사적으로 뜻깊게 하고 회중을 감동케 한것은 조선의 위대한 애국자, 평양이 낳은 영웅 김일성장군이 여기에 참석하여 민중에게 반갑고도 열렬한 인사와 격려를 보낸것이다. …조선동포가 가장 숭모하고 고대하던 영웅 김일성장군께서 그 름름한 용자를 한번 나타내이니 장내는 열광적환호로 숨막힐듯 되고 거의 전부가 너무 큰 감동때문에 소리없는 울음을 울었다.》

격정의 눈물이 끝없이 솟구치는 환희의 마당에서 울려퍼진 천지를 진감하는 만세의 환호성은 칠성판에 올랐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절세의 영웅, 해방의 은인께 드리는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과 고마움의 인사였다.

해방의 만세소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으로 난생처음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된 이 나라의 인민들이 터치는 《토지개혁 만세!》, 《산업국유화 만세!》, 《남녀평등권 만세!》로 이어졌다. 새 조선의 당당한 주인이 된 어제날의 머슴군, 소작농, 막벌이군, 부엌녀들은 행복의 세상을 빼앗으려고 달려든 침략자들과의 결사항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용감히 싸웠다.

전화의 그 나날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치며 조국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였던가. 그들속에는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점을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연 18살의 청년도 있었고 불붙는 비행기동체와 함께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적함선에 돌입한 용사도 있었다.

인간의 참다운 삶을 안겨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고향과 부모처자, 조국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전승의 기적을 안아온 영웅인민은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목청껏 《김일성장군 만세!》를 웨치고 또 웨치였다.

위대한 수령을 따르는 길에 승리가 있다는것을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한 공화국인민들은 조국앞에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다졌다.

그리고 오늘은 또 한분의 만고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만세!》를 웨치면서 부흥강국의 지평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 땅의 천만아들딸들은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최악의 극난속에서도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라 찬연한 빛을 뿌리는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과 로고의 결정체라는것을.

인민은 행복의 길만 걷게 하고 자신의 고생길은 절대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우에 강대한 국력의 실체들이 마련되지 않았던가.

그렇다. 만세의 웨침에 비낀 민족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은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셔야 민족의 존엄도 영예도, 후손만대의 행복도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민족사에 새겨주고있다.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 담대한 배짱과 웅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공화국인민이 터치는 기쁨과 환희의 만세소리, 승리의 만세소리는 날로 무궁번영하는 주체조선의 모습과 함께 세세년년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오 향 숙